

오끼나와 오도리가(舞踊歌) 부시(節)의 特性

좌 혜 경*

目 次

1. 서언
2. 오끼나와 야부(屋部) 하찌가츠오도리(八月踊)
3. 아마미(奄美) 고미나토(小瀬) 하찌가츠오도리(八月踊)
4. 미야꼬(宮古) 구이차야야구(グイチャー アヤグ)
5. 결어

1. 서언

오끼나와 지역에 전해지는 민속무용 구비전승의 상황과 무용을 위해 불러지는 노래가사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첫째 오끼나와 본도 나고시 야부 부락에서는 매년 음력 8월 10일에 하찌가츠 오도리(팔월용 八月踊) 행사가 치러진다. 이는 쌀의 풍작을 신(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제(秋收感謝祭) 형태의 민속축제라 할 수 있다. 주로 제의(祭儀)와 춤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반주 음악과 음악의 가사인 부시(節) 등 무용과 음악, 문학의 종합체적인 성격을 띠고 전승되고 있다.

오끼나와 북부 가고시마현 아마미 고미나토의 하찌가츠오도리 역시 주로 음력 8월 15일에 추는 민속춤을 뜻한다. 춤과 함께 불러지는 대부분의 민요는 아마미 전 지역에서 불러지는 민요 중에서 선택되고 있다. 그래서 팔월용의 가사는 아마미의 민요현장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자료로 볼 수 있다.

* 제주대 강사

한편, 오키나와 현 미야코군(宮古郡) 이라부초(伊良部町)는 일개의 섬으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자신들만의 민요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섬방언을 그대로 간직하고 섬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라부의 기우제나 미야코쯔츠(宮古節)행사 때 추는 구이차 오도리를 하면서 '구이차아야구'(グイチャー, コイチャー - アヤグ)를 부른다. 아야구라는 명칭은 '綾語로 된 노래', 곧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된 노래'라는 뜻을 지닌다.

조사는 1998년 8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일본 오키나와현 나고시 야부부락에서, 1999년 8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아마미 고미나토 지역을 중심으로 하찌가츠오도리를 살필 수가 있었다. 이라부섬에서는 2000년 7월 4일부터 16일까지 민요를 조사하고 민속적 상황을 살폈다.

이 연구에서 중심으로 살필 내용은 불려지는 노래인 부시(節)의 특성에 관해서이다.

2. 오키나와 야부(屋部) 하찌가츠오도리(八月踊)

가. 구비전승의 상황

야부(屋部) 하찌가츠오도리(八月踊)는 신성(神聖)한 지역인 아사기(アサギ)에 모여서 행사의 시작을 신에 알리는 의례를 치른 다음 신녀(神女)에게 받치는 봉납무(奉納舞)로부터 시작된다. 이후 본격적인 예능 오도리가 행해진다는 점에서 신에 대한 의례 뿐만 아니라 민간 민중들의 오락 연회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풍요기원적인 의례형식이다.

특히 팔월용은 1988년 현(縣)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매년 행해지고 있다. 집단 협력에 의해 치러지므로 집단의 결속력이 강하다.

해마다 프로그램에 따라 종목을 결정하여 연습에 임하게 되는데, 풍년오도리(豊年踊) 종목 중에서 '장자의 대주'(長子の大主), '희영절'(喜榮節) '순도'(スンド-) 등은 고정되고, 전체 22-23편으로 구성되며 매해마다 구성이 재편되고 있으나 크게 다르지 않은 편이다. 대부분 슈리, 나하 등에서 행해지던 것을 받아들인 것이 많으나, 야부적 독특성을 지니고 야부에서만 행해지는 것으로 디마류(手間戸), 희영절(喜榮節), 만수주(萬壽主)가 있다.

오끼나와 오도리가(舞踊歌) 부시(節)의 特性

나. 부시(節)의 特性(特性)

1) 송축과 기원의 주술성

주술적, 신앙적인 요소는 그 집단을 결속하거나, 행사의 전통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어원용(御願踊)인 축원무(祝願舞)에서 장수와 부, 자손번영을 기원하는 '장자의 대주' 중에 부르는 가자디후 풍<かぎやで風>은 꽃이 핀 상징성을 통해서 그날의 기쁨을 표현한다. 이어서 불려지는 구두치<口説>에서는 쌀의 풍요와 축제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또 부채를 가지고 생명감을 표현하면서 소나무의 늘푸름을 노래한 축의무 구티이부시<コテイ節>, 쌀을 거둬들이고 타작의 과정을 표현한 도섭절<稻摺節>도 풍요를 기원한다. 이 도섭절<稻摺節>은 쌀을 수확하는 감사의례제, 예축예능으로서 지역의 생활과 밀착되면서 지역주민은 전대로부터 매년 해를 반복하여 관습적으로 전승시켜 온 것으로 꽤 오래된 것이다(仲宗根幸市 1998: 64). 특히 이 세가지 어원용은 반드시 행사 시작 맨 처음에 시작되며, 기원적인 요소가 강해서 신녀(神女)들에게 봉납한다는 봉납무용으로서 신앙적 성격이 강하다.

또한 송축, 기원의 특성은 오복의 무(五福의 舞)나 요츠다케(四つ竹)중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요츠다케의 <화풍절(花風節)>에서는 번창하고 평안한 거리에서 들리는 노랫소리와 눈과 같은 쌀의 풍작을 기원한다.

五福의 舞에서는 송(松), 죽(竹), 매(梅), 학(鶴), 구(龜)를 차용해서 절개(節概), 의리(義理), 지조(志操), 장수(長壽)를 기원한다.

2) 유희와 연애의 서정성

팔월용의 전승력은 주술적인 성격과 더불어 서정가(抒情歌)의 내용과 오락적인 흥미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노동적인 성격을 서정화 한 노래인 가세가키의 내용처럼 대체적으로 서정적이다.

그리고 관음당(觀音堂) 혹은 천수관음(千手觀音)이 나오고 염불가(念佛歌)나 미륵(彌勒)에의 기원을 노래하는 축복의 성격을 띤 구두치<口説>나 누부이구두치<上り口説> 등에 보여지는 것도 오락성과 함께 개인적 정서가 표현된다. 특히 자연찬미, 연안항해(沿岸航海)의 여흥(餘興)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하나오도리(花踊り), 마에하마요나라(前之浜与那原)의 부시 속에는 꽃놀

이를 하면서 즐기는 개인의 정서나 백나주천<白瀬 주천> 냇가에서 행해지던 꽃놀이의 정경, 그리고 미누하마(前之浜)와 요나하라(与那原)에서의 야유(野遊)의 장면 속에서는 유희와 함께 남녀 사랑의 정서가 공통적으로 배어난다.

이러한 노래들은 특히 오끼나와에는 노동요보다 연가(戀歌)가 압도적으로 많다(仲宗根幸市, 1997:34)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카나요에는 이러한 유희나 사랑, 혹은 연애 등의 서정을 노래한 부시들은 전승력에 일익을 담당한다.

야부를 대표하고 있는 티마튜(手間戸)의 티마튜부시<手間戸節>에서도 옛날의 모아소비(毛遊), 유야소비(夜遊)의 정경이 묘사되며 특히 젊은 청년들이 모래톱에서 자유분방하게 놀며, 노래 부르던 정서가 두드러진다.(仲宗根幸市, 1997: 114-118)

이러한 아소비 장소가 고정적으로 등장하는 지역으로는 순도<スンド>에 나타나는 '소둔장빈(諸鈍長浜)'과 '전지빈겸구원(前之浜兼久原)'이다. 이외 지역으로 '우지내해(羽地内海)', '대도해협(大島海峽)' 등이 유명하다.(仲宗根幸市, 1998:94) 야부 근처에 있는 '전지빈겸구원'은 야부만에 접한 장소로 아름다운 모래톱이 있다.(名護市教育委員會, 1986:47) 그곳에서 놀이를 통해 맺어진 남녀의 애틋한 사랑의 산실(産室)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내용을 산출하게된 장소인 하라(原)나 하마(浜) 등을 배경으로 서정적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다.(青山洋二, 1997)

남녀의 사랑이야기가 가장 노골적으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순도(スンド-)이다. 세가지의 부시로 구성되고 있는 데 추녀(醜女)와 모래처럼 피부가 흰 미녀를 등장시켜 서로 상대적 신분의 인물을 통해 대칭적으로 나타낸다. 슈둔여동(諸屯女童), 그녀에 대한 애정, 연모와 호색성(好色性)이 나타나 젊은 남녀의 춘정(春情)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3. 아마미(奄美) 고미나토(小湊) 하찌가츠오도리(八月踊)

가. 구비전승의 상황

아마미 사람들에게 가장 심민요(시마우타)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하찌가츠오도리가(八月踊歌)이다.(中原ゆかり: 1997, 21-22) 섬사람들의 일년 생활에 있어서 정월(正月)에 불려지는 사미센가(味線歌)와 함께 음력 팔월 중심으로 행해지는 하찌가츠오도리는 가장 중요한 축제이며, 연희행위이다.

오끼나와 오도리가(舞踊歌) 부시(節)의 特性

춤은 연중행사(年中行事) 특히 음력 팔월 아라시치(アラシチ), 시바사시(シバサシ) 이후 동가(ドンガ)때나 음력 팔월 15일 주고야 아소비(十五夜遊ビ)때 주로 행해지고, 9월9일 에비쓰 신사(嚴島神社) 제일(祭日) 때 신사를 정돈, 수리하면서 이 춤을 바친다.

달이 뜨면 사람들이 북을 들고 마(芋 マ-)라는 광장에 나와 남녀가 함께 춤을 추는데, 단순한 북 리듬에 맞추어 자신들의 민요를 부르면서 미묘하게 변화되는 동작을 한다. 10-20여 명의 남녀노소가 원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춤을 추며 노래한다.

북(지진ジン)은 여성들 만이 들고 칠 수 있는 데, 북을 치면서 노래를 이끌어가고 발동작과 노래의 리듬을 맞추어 춤을 춘다. 누구나 춤을 추고 싶은 사람은 아무런 제한없이 나와서 춤을 출 수 있으며 대부분 연장자가 앞서 춤과 노래의 선두를 이끌어 나간다. 북치는 사람은 주로 여성이며, 치는 방법은 특별한 훈련없이 눈으로 익혀나간다.

나. 가사의 特性

주로 따르는 곡은 춤이 시작되어 가장 처음에 부르는 소우시라레(そうしられ)와 춤이 다 끝나고 헤어질 때 부르는 오보꼬레(おほこれ)를 포함하여 24곡이 전해진다. 그리고 가네사루 때 부르는 오보꼬레를 가네사루오보꼬레(かねさるのおほこれ)라고 한다. 노래 선택은 행사시 상회(常會)에서 엄선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실제 춤을 추면서 선두자가 앞서 곡을 리드해 나간다.

1) 교술적(敎述的) 전개에 나타난 춤 현장과 교훈

가사는 춤이나 노래에 대한 향유자들의 일반적인 사고를 노래한다. 춤의 전통성(오보꼬레(おほこれ), 춤추는 현장(手ふりふり), 춤과 더불어 인사(人事)와 풍요기원 등을 노래한다. 곧 춤과 노래를 통하여 삶의 표현과 인간과의 和解(화해)를 노래하게 된다.(今の踊り)

또 교훈적(敎訓的)인 혹은 인간사(人間事)를 노래를 통해 직접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한층 승화(昇華)시켜서 맺구적인 표현을 이용하거나 암시적으로 전개한다. (오보꼬레(おほこれ)중), (喜界灣泊り중), 鹽道長浜 중)

2) 서정적(抒情的) 전개와 유희와 연애

민요가사에는 남녀 연애에 관한 것들이 많다. 남녀간의 사랑 노래는 사람들의 삶에 역동성을 부가하는 원천이 된다. 사랑노래는 (さくさくぬがばさ중), (ありすまちな중), (しゅんかねくわ 중), (そうちゅうぬ 花酌 중)에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과거의 젊은 남녀들은 연애가 금기시 되었고, 단지 남자와 여자들이 밤이나 낮에 산에 모여서 놀던 유희 형태인 네세모라베아소비(ねせもらべあそび) 때만 허락이 되었다. 남녀 연애적인 성격이 강한 표현이 나타난 노래들은(赤ん村 중)(前浜(めえはま)がちんぐわ 중) (おせはだり중), 浜千鳥 (はまちぞら중)에서 찾을 수 있다.

3) 서사적(敘事的) 전개와 비극성

서사적인 노래들인 경우 주인공이 삶의 일대기를 통해서 인물전설처럼 형상화 되어 나타난다. 대부분의 주인공이 미모를 갖춘 여성으로 나타나며 지배세력에 대한 피지배 세력이 겪는 비극적인 삶이 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서사적인 노래의 역사적인 배경은 일본 막부(幕府)의 아마미 침공과 강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는 '우라토미'와 우라토미의 딸 '무차카나'에 대한 이야기가 유명하다. 그리고 '간츠메부시(節)'와 케사마츠의 이야기를 담은 '슈미찌나까하마'(鹽道長濱)도 전해진다. 이러한 서사요들은 사건 중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나 사건의 실마리를 서정요의 형식을 빌어 표현하기도 한다.

간츠메 부시(節)는 간츠메라는 여주인공의 비극적인 삶을 잘 전한다. 사랑했던 남성 암카나(岩加那)가 화자(話者)가 되어 부르는 노래이다. 노예의 딸인 간츠메를 통하여 노예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이 받는 학대의 설움과 암카나(岩加那)와의 연애의 서정을 노래한다.

다른 하나는 슈미찌나까하마(鹽道長浜)가 있다. 여주인공 케사마츠의 전설을 노래한 것이다.

노래 가사 중에서 어린 아이들(童)은 청년들을 뜻하고, 땀냄새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매력있는 여성을 의미한다. (小川學夫: 1999, 196)

서사적인 전개 외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단순한 서정을 노래 할 때에도 '하나카나', '뮤차카나'처럼 주인공 이름이 나오고 주인공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미리 잘 알고 서정화시킨다. 특히 이러한 노래들은 생성되어 전승되면서 비극의 차원을 넘어

오끼나와 오도리가(舞踊歌) 부시(節)의 特性

서서 미의 경지를 획득한다.

4. 미야꼬(宮古) 구이차아야구(グイチャー アヤグ)

가. 구비전승의 상황

‘구이차’ 혹은 ‘코이차’라고 한다. 구이차는 정확하게는 “소리를 합하여 야외에서 추는 춤”이고 아야구는 “춤과 함께 불려지는 노래”이다. 춤의 원래 기원은 사츠마 지배 당시에 인두세(人頭稅)라는 가혹한 조세를 공출 상납물(上納物) 생산을 위해 풍요기원과 비를 내려 주도록 기원하기 위한 방안에서 시작되고 기원의 장소인 우타키와 같은 신성한 지역에서 행해졌다(伊良部村史編纂委員會, 1978:149) 사제인 쓰까사들이 제를 지낸 다음 사람들이 모여서 원을 만들고 박자와 리듬에 맞추어 노래를 하고 춤을 춘다. 그 유형은 두가지로 구분된다.

1) 비를 기원하면서 부르는 구이차

비를 기원하는 구이차와 미야꼬츠쯔 때에 부르는 구이차는 내용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비를 기원하는 노래인 경우는 신에게 기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렇지만 신의 뜻에 따라 춤이 만들어지고, 춤을 신에게 받치는, 또는 신에게 기원하는 내용의 노래가 춤 시작시 부르는 것은 공통적이다.

비를 기원하는 내용은 신에게 풍요 기원으로 나타나므로, 비록 남녀의 사랑의 정서가 나타나더라도 풍요기원의 유감주술적인 효과로 해석가능하다. 곧 정신적인 비, 위안의 비가 풍부하게 부락에 내려지는 것이다.(河村只雄, 1972:301) 현재 비를 기원하는 구이차는 가뭄이 들었을 때만 하고 있다

2) 연회 구이차 (서로가 함께 부르는 노래)

연회 형태인 구이차는 주로 북구 佐良浜 학구인 池間添과 前里添에서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豊年祭 宮古節 때 前里添의 ‘봄미야’에 모여서 밤이 새도록 흥성된 춤을 춘다. 우선 구이차를 노래한 후에 ‘가나샤가무’를 노래하고 마지막으로 ‘가차시’를 한다.

여자만 혹은 남자 만으로 혹은 남녀 혼합으로 추어지는데, 몇사람에서 수십인 혹

은 100 명이 넘을 때도 있다. 춤형태는 어느 정도는 자유이고, 큰 형식은 발을 땅에 치고 손을 상하로 흔들면서 손박자를 맞추고, 우선 처음 연습하는 사람들인 경우는 얼굴 앞에서만 그 동작을 취하여 나중에는 자유롭게 추도록 한다.

나. 구이차 아야구의 특성

1) '아야구'라는 노래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춤과 노래에 대한 유용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곧 연희의 기능성과 노래의 기능적 목적에 대한 설명이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목소리가 막힘이 없고, 천을 찢는 사람은 무늬를 만드는 것은 자유이다”(연희구이차) 처럼 노래 역음을 천 찢는 사람에 비유하기도 한다. “노래를 이어가지 않는 것은 씨가 없는 것과 같다”(연희 구이차)는 노래의 필요와 유용성, “올해는 풍년이요, 내년에도 점점 풍년이 들어 안심하세요”(아메고이 구이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연희의 기능적인 목적이 드러난다.

2) 물로 둘러싸인 섬의 한계적 상황을 긍정하고 삶에 대한 시각이 공존적이며 화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노래 자체가 지니는 특성이 밝음의 이미지를 지니고, 서로가 노력을 하고 평안을 갈구하는 평화로운 세계를 노래하고 있다.

“서쪽 우물의 작은 산 큰 그물을 넓게 드리워서
아이들이 달려나오고 모여서 함께 놀자”(아메고이구이차 중)

이는 상대를 축원해주고 축복하는 노래 자체의 성격에서 온 것이겠으나 더불어 이라부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임과 동시에 향토애를 느낄 수 있다.

3) 낭만적인 사랑과 연애를 노래한 사실이 노래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아야구가 남녀가 같이 어울려 놀면서 불려지기 때문에 사랑을 갈구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치는 노래가 대부분인 것이다. 남성은 여성 앞에 가서 춤을 추고 노래하며 연애와 사랑 노래를 한다. 이에 여성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즉흥적인 가사를 대답한다. 이러한 교환창의 노래형식은 남녀의 대등한 지위를 증명한다. 제재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맹세와 의지를 표현하거나, 연인을 그리워하는 마음, 오지 않는 님을 기다리는 초조한 심정, 여성이 남편을 기다리는 심정 등이 잘 드러난다.

“하룻밤의 침이라도 唐과 大和까지도 소문이 나면 소문나는 데로
평이 나면 나는 데로 사랑할거야”(아메고이 구이차 중)

오끼나와 오도리가(舞踊歌) 부시(節)의 特性

4) 인간사와 교훈적인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효를 권장하거나, 가화만사성, 혹은 가족 구성원간의 협조와 가족애를 권장한다.

“아름다운 여자도 17-8세가 최고다”(아메고이구이차 중)
“부모가 있으면 밖에 나가 자유로이 놀 수가 없고 말을 나쁘게 하면 나빠지고
좋게 하면 좋아진다”(구이차오도리 중)

5. 결어

오끼나와 본도를 중심으로 북쪽인 아마미, 남쪽인 미야코의 원시무용과 함께하는 민요들은 제각각 다른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야부 팔월용은 상당한 고급예술적인 수준을 획득했는데, 그 원인은 오끼나와 왕부 예능과의 접합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반해서 아마미의 팔월용은 아직도 원시 농경사회 풍요 기원의 목적으로 행해지던 원시 종합예술적 특성을 간직한 채 전수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다. 또한 미야코의 구이차 예능 오도리는 원시사회의 비를 기원하던 의식적인 행사와 더불어 행해지던 것이 근현대로 오면서 청년들이 예능으로 화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노래 가사의 특성으로서 오끼나와 본도 팔월용에는 노래의 송축과 주술성과 남녀 연애적인 특성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반해, 아마미 민요에는 교술과 서정, 서사의 장르적 전개가 뚜렷하다. 특히 서사요의 비극성이 그 특징으로 나타난다. 한편 미야코 사람들은 도서적 환경을 긍정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섬사람들의 한계에 대한 긍정과 수용, 갇힌 상황에 대한 극복 혹은 자신들의 노래, 문화에 대한 애착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하다. 그리고 인간과의 화해와 자연과 조화하는 평화스러움을 볼 수 있다.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표현은 세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남녀 모임인 유희(아소비)와, 그 속에서 전개되는 사랑 표현이 낭만적 서정으로 나타나 시적 정서를 형성한다.

어느 지역이나 자연 환경과 문화적 관습의 차에 따라서 각자의 문화를 형성하고 나름의 문화를 재구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많은 도서(島嶼)지역 연구를 통해 이 글이 더욱 객관성을 획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참고문헌

- 宮城眞治, 『その村と家と人と』, オキナワ: 名護市・仲宗根幸市, 1987.
- _____, 『しまった流れ』, オキナワ: ボーダーインク, 1997
- _____, 『しまった追いかけて』, オキナワ: ボーダーインク, 1997.
- 青山洋二, 『流歌の里めぐり』, オキナワ: 郷土出版, 1997.
- 照屋寛善, 『沖縄の古典芸能』, 東京: 第一書房, 1995.
- 松原武實, “名瀬市 小湊の 八月踊り 歌詞集”, 『南日本文化』26, 鹿兒島: 鹿兒島短期大學 附屬南日本文化研究所, 1993.
- 小湊郷友會編, “うやほじのしまった”, 『八月踊り歌集』, 東京: 海観書, 1995.
- 池田嘉成, 『しまった教室資料』, 東京: 南海春秋社, 1991.
- 小川學夫, 『奄美の島唄-その世界と系譜』, 東京: 根源出版, 1981
- _____, 『歌謠(うた)の民俗』, 東京: 雄山閣, 1989.
- _____, 『奄美しまったへの招待』, 鹿兒島: 春苑堂出版, 1999
- 文朝光, 『奄美大島民謡大観』, 鹿兒島: 南海文化研究所, 1983.
- 中原ゆかり, 『奄美のシマの歌』, 東京: 弘文堂, 1997.
- 外間守善・新里幸昭, 『南島歌謠大成』3, 宮古篇, 東京: 角川書店, 1978.
- 河村只雄, 『南方文化の探究』, 沖縄: 沖縄文教, 1972.
- _____, 『南海の歌と民俗』, 沖縄: Orkinawa Bunko, 1990
- 仲宗根幸市, 『島うた紀行』, 沖縄: 琉球新聞社, 1990.
- 伊良部村史編纂委員會, 『伊良部村史』, 伊良部: 伊良部村役場, 1978.